

대전환기의 우리 농촌 어떻게 살릴 것인가

許 信 行

前 농림수산부 장관
現 한국소비자보호원장

1. 급격한 세계변화

세계는 지금 급격하게 파동치고 있다. 농업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현란한 변화가 일어난다. 세계변화의 물결에서 뒤쳐지면 누구라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 수구적으로 방어만 하러들면 낙오된다. 세계변화를 읽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항해하듯 잘 적응하고 농민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더 잘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세계는 지금 『전자(電子)』라는 소립자를 기본으로 하는 3대혁명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다. 첫째가 통신혁명이고, 둘째가 교통혁명, 셋째가 컴퓨터혁명이다. 이들 혁명에 의해서 세계는 『한장터』로 통합되고, 『한몸』으로 깨달아 가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 나뉘어져 다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한 가족속의 형제들처럼 화합과 협조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물론 형제간에도 이해다툼이 일어나듯이 국가간에도 약육강식이 생긴다. 그러기에 각국이, 또는 우리 농민들이 능력을 강화시키는 일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런 세계변화속에서 살아남아 잘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

2. 한국농업의 부활

우리 나라의 농업은 1960년대 말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를 향해 줄줄이 떠나고, 농산물값의 불안정, 비료, 농약, 자재, 사료

등 농업용 투입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농촌임료급의 급등, 일손부족, 농촌부동산의 상대적 하락, 농약공해, 열악한 교육조건, 낙후된 문화환경, 뒤쳐진 의료 및 보험, 복지혜택 등 숱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였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은 농촌의 황폐화, 노령화 그리고 무기력 그대로였다. 희망이 사라진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불어닥치는 개방화의 물결은 우리 농민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송두리채 뽑아가는 형국을 이루고만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농업, 농촌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생.노.병.사라는 윤희 차원에서 보면 우리 농업의 사(死) 즉 죽음이요 끝남이다.

1970년대말 또는 1980년대 초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농업은 끝났다.”는 공감대 형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었다. 농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업인, 학자, 언론인,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농민들까지도 “농업이 끝난”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반경제학자들은 소위 『비교우위론』을 앞세워 농업포기를 유도했었고, 농업계 학자들은 농업의 『정치적 보호론』을 들추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전통적인 민족감정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경제와 정치논리가 서로 맞붙어 싸우게 됨으로써 조화점을 찾지 못하고 농업문제는 드디어 국회로 떠 넘겨지게 됨으로써 “뜨거운 감자”로 변해버렸다.

정치논리와 식량안보론, 농민 푸대접, 소위 살농(殺農)정책이란 감정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농정의 합리적인 방향설정이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말았다. 누구도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려고 나서지도 못한 상황, 걸핏하면 그 순박한 농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극한 대치가 다반사로 일어남으로써 마치 농업, 농촌이 참으로 끝나 버리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이다. 그런 자연의 이치를 알기에 농민들은 떨어진 낙엽을 모아 새봄의 농사를 생각하면서 불에 태운다.

동양철학에 의하면 “사(死) 즉 생(生)”이라 하였다. “궁(窮) 즉 통(通)”이요 더 근원적으로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이다. 이런 이치를 기독교에서는 “부활(復活)”이라 한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법칙에 벗어나 따로 행동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농업만 예외일 수 있겠는가? 한국 농업이 막다른 골목에서 끝나거나 죽는다면, 그것은 곧 부활농업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이런 묘법을 모르니까 감정싸움에 말려들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투자방향을 제대로 못잡아 농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알고보면 죽는 모습의 농촌을 벗어나 부활하는 새로운 첨단기술농업을 향해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동양철학에 의하면 죽는다는 것은 걸모습의 변화, 즉 걸모습의 사라짐을 의미한다. 실제 근본은 끄덕도 하지 않는다. 농업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농업이 죽는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진실을 모르고 걸모습만 보면서 달밤에 춤추는 격이다. “죽는다”는 말은 수천년간의 쟁기농업, 뚝장군농업, 호미로 김매는 농업, 열심히 일해도 못사는 농업이 사라진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부활하는 농업은, 새로운 첨단기술농업이다. 중대형 트랙터로 농사짓는 농업, 컴퓨터로 작업하는 농업, 유전공학으로 돈버는 농업이 바로 부활농업이다.

앞으로 다가올 부활농업은 더 이상 근육농사가 아니요 천한 작업도 아니다. 모든 작업이 자동화된 멋진 농업, 깨끗하고 맑은 신사농업,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정농업, 그리고 미래가 약속되는 유망산업이 바로 농업이다. 부활의 의미는 이처럼 다양하고 깊은 것이다.

부활기에는 많은 고통과 혼란이 따른다. 그러나 그 후에 나타날 변화의 모습은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참고 극복해내야 한다. 부활농업을 믿고 농촌으로 들어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 그 조정기간은 짧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누구도 부활의 순리를 거역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농민 그리고 농업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의 자각, 즉 깨달음이 앞서야 한

다는 사실이다.

전국에 돌아다녀 보면 벌써 부활한 농민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많이 솟아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의 전주영씨 부부, 경기도 용인군 『농도원』의 황병익씨, 충북 청원군의 오덕영씨, 전북 익산군 『하림』의 김홍국씨, 전남 해남군의 정운천씨 같은 사람들이 부활한 농민이요 이 시대의 개척자이며 작은 영웅들이다.

3. WTO시대의 개막과 수출농업

교통과 통신의 혁명으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한다. 그 여파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서 뜻하지 않게 농산물시장까지도 날개없이 개방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알고보면 그 고통은 전화위복의 기회로도 바뀔 수 있다.

UR협상에 의해서 125개국의 다양한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개장하게 된다. 선진국은 6년이내에, 개도국은 10년 이내에 보호의 장벽을 허물어 내고 명실상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도록 되어있다. 4천 5백만명의 한국시장을 57억 인구의 거대한 지구촌시장으로 확대시키면, 우리 나라뿐 아니라 WTO에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잘 살게 되어있다. 그 가운데서도 교육열이 높고 남달리 근면한 우리 나라 국민들은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농어촌의 읍·면 단위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한 5일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UR이후의 세계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역사이래 5일장의 숫자가 1975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함께 그후 400여개소의 5일장이 사라지고 말았다. 5일장이 “사라진다”, “없어진다”라는 말은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5일장이 국가시장으로 개방 내지 통합된 것이다. 5일장이 사라질 때 중간붓집 장사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농민과 소비자들까지도 대단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의 성장과 발전으로 나타났다. 생산량과 소비량 그리고 거래규모가 동시에 늘어남으로써 중간상인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향상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몇천명의 5일장이 4천 5백만명의 대한민국 시장으로만 개방 내지 통합되어도 이처럼 모두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는데, 하물며 57억 인구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개방 내지 확대될 때 피해자가 생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엄청난 무역규모의 확대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농촌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분야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는 데서 파생한 계산착오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곡물이나 대가축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농산물의 생산을 일부 축소하는 반면에 유리한 과일이나 채소, 특용작물, 꽃, 산채, 약초, 중소가축 등의 생산규모를 늘려 국내시장 뿐만이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개척해 나가면 우리 농민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농업의 방향을 잘 잡고, 자주.자립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농어촌에 결코 피해는 없다.

이처럼 생선의 중간토막과 같은 유리한 품목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나가면 우리 농민은 오히려 더 잘살 수 있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 그 길이 바로 『수출 농업』이다. 농업분야에서도 수출을 늘리는 길이 농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여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세계최고의 기후풍토와 자신감

세계에서 농업이 가장 발전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그리고 덴마크로 널리 알려진바와 같다. 이들 국가는 우리 나라의 국토면적보다 작고 농가호당 경지면적도 그렇게 크지 못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농업을 개발해 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세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농업여건을 가진 나라 가운데 속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3분의 2 정도의 국토에 연중 비 한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역설적으로 최고의 농업을 개발하였으니 여기에는 무슨 숨은 곡절이 있음직하다.

네덜란드 역시 바다보다 낮은 국토에 잦은 강우로 농사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국가이다. 덴마크도 겨울이면 밤이 길고 비가 자주 올뿐만 아니라 햇볕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농업에 아주 불리한 조건을 가졌다.

그런데 이들 세 국가는 세계에서 으뜸인 농업을 육성해 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는 어떤가? 세계에서 최고의 기후풍토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다. 어쩌면 세계 최고라 자부심을 가져도 손색이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

거의 3개월씩, 분명한 4계절에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이가 70도를 넘고 주야간의 온도차이도 25도 안팎일 정도로 다양한 기후를 가진 나라가 한국이다. 농업은 다양한 기후풍토를 갖출때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산업이다. 그 증거로서 우리 나라의 농산물 대다수가 품질면에서 우수하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향기롭고, 때깔 좋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나라의 농업은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처럼 발전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마치 수수께끼와 같다.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의 농업은 최고로 발전한데 반해서 가장 좋은 국가의 농업은 오히려 발전하지 못한 아이러니는 어디에 있을까? 이 수수께끼 같은 열쇠로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놀기 좋아하는데 비하여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와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본다.

우리 나라는 너무나 좋은 기후풍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을 힘들여 개발할 필요성을 갖지 못한데 반하여 이스라엘이나 네덜란드는 농업을 열심히 개발하지 않고서는 먹거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된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도, 손해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생겼는지 모른다.

만일 이런 관찰이 사실이라면 우리 나라의 농민과 관련 인사들은 농업의 낙후성을 타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에 대하여 자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농업의 장래에 대하여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예술적인 고품농업

세계농업은 지금 고품농업으로 변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누구나 고급 농산물을 소비하게 되어 있다.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형태의 변화를 보면 대충 5단계로 나타난다. 소득수준이 낮을 때에는 『생존』을 위해서 식품을 소비하고, 점차 향상되면 『영양』→『맛』→『멋』→『예술』의 단계로 향상된다. 농산물 소비가 『예술』의 단계에 이르면 5감(感)에 의한 소비를 하게 되어 있다. 맛있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멋있는 그런 농산물을 소비한다. 이러한 농산물 소비형태는 우리 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가 모두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경제는 지금 성장 일로에 놓여 있으므로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누구나가 고급식품, 즉 고급농산물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세계농업은 고품질로 나아갈 수 밖에 없고, 우리 나라의 농업도 예외일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는 세계 으뜸이요, 최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내시장 뿐만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향하여 예술단계의 농산물을 생산해 내기만 하면 농민들의 고소득 쟁취는 시간문제라고 판단된다.

6. 소비자시대의 개막과 고객만족형 영농

1995년 1월 1일부터 WTO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소비자시대가 이 땅에서 개막되었다.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지구촌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의 장벽없이 속속 밀려 들어오게 되었다.

소비자시대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경험한 미국은 1962년 대통령에 의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특별교서』가 만들어졌다. 이때부터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7대 권리는 1) 안전권리, 2) 알권리, 3) 선택권리, 4) 의견반영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받을 권리, 7) 환경보존 및 단체조직권리로 압축된다.

소비자의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책임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소비자연맹에서 채택한 소비자책임은 1) 비판의식, 2) 적극적인 참여, 3) 생태계 보존책임, 4) 사회적 책임, 5) 단결로 압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강화되고 무한선택의 시대를 맞이한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더 이상 구입하지 않고 『자기만족』을 사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농산물을 외면하면 어떤 생산농민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민들 역시 다른 기업인들과 마찬가지로 『고객만족형의 영농』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7. 대응자세

WTO시대의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자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람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의 오랜 경험을 통해 말할 수 있는 대응자세는 첫째 『자각운동』의 발현이라고 믿는다.

한국의 농업여건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업여건이 가장 열악한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등이 농업을 가장 잘 개발한데 반해서 여건이 가장 좋은 우리 나라가 낙후되어 있다는 아이러니를 자각하지 못하면 농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농민은 물론 농업 관련 공직자와 기타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의 자주 자립정신, 즉 홀로서기 정신운동이 앞서지 않고서는 농업분야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의 회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도 하면 된다.” “한국은 가장 좋은 농업여건을 가졌다.”라고 하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뛰지 않으면 모처럼의 UR기회도 놓치고 말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설계, 꾸준한 노력, 도전하는 열정으로 농업을 개발하면 부활농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정부의 5대 혁신운동을 제창한다. UR이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할 일은 1) 국제경쟁을 위한 구조혁신, 2) 전문농업을 위한 인력혁신, 3) 과학영농

을 위한 교육혁신, 4) 첨단농업을 위한 기술혁신, 5)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혁신이라고 본다.

셋째, 농민들은 4대 자구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와 농민의 역할을 분담하고 농민은 농업의 주인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자가 일찍이 제창한 바 있는 4대 자구운동은 1) 자주자립의 홀로서기 운동, 2) 1호 1품의 일등주의 운동, 3) 산.학.관.연의 하나되기 운동, 4) 유통혁신의 협동조합운동이다.

넷째, 시·군 농촌지도소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산.학.관.연의 하나되기 운동이 바로 이 센터를 통해 일어나야 한다.

다섯째, 품목별 생산자 전문조직 또는 전문 협동조합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정부의 시장혁신정책이나 농민들의 협동조합운동은 모두가 이 품목별 전문조직과 연계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이 『내 생산물은 내가 판매한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품목별로 조직하여 생산과 유통을 일관되게 연결하고 생산 및 출하의 조절부터 시작하여 등급, 포장, 가공, 저장, 수송, 수출 등에 이르기까지 일관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산학협동 강화를 위한 농과대학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게 단행돼야 할 것이다. 35개가 넘는 농과대학을 각 도에 1개씩으로 통폐합하고 총 1,300명 정도의 교수진을 대학 평균 130명씩 배치하여 『1교수 1과목』으로 전공케 하여 나머지 시간을 산학협동연구에 전념케 하면 농업의 발전은 물론 대학의 발전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연구자금의 획기적인 증액과 함께 시·군 단위 지역농업개발센터와 연결시키면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일곱째, 지구적으로 넓게 생각하고 100여년 정도 길게 내다보면서 조정과 적응을 신속하게 해 나가야 한다. 농업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분야가 정신없이 변하고 또 변한다. 신속한 조정과 적응력을 결여하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렇다고 하여 불안과 위기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까지는 없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단하게 노력하는 농민들 앞에는 새로운 밝은 세상이 훤히 열릴 것이다.